

칠산대교·화양대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까

영광·무안군, 칠산대교 개통 앞두고 TF 구성 관광객 유치 대책 분주 여수·고흥군도 화양대교 관광 랜드마크 자리매김 예상 인프라 확충 나서

섬과 섬, 섬과 물을 연결하는 다리 하나가 자치단체를 들쭉이게 하고 있다. 물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를 따라 지역 곳곳을 둘러보려는 여행객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판단에서다. 다리 개통을 앞둔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상되는 관광객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군은 영광군 연산면 봉남리-무안군 해제면 송석리를 잇는 칠산대교(길이 9.52km)가 오는 9월 추석 명절에 임시 개통되면 지금보다 10배 이상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영광 칠산타워 입장료를 할인해 관광객 발길을 붙잡는다는 복안이다. 인근 연산면 설도항 정갈타운과 연계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확충하고 항화도항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로시설·관광·지역경제활성화로 분

아를 나눠 점진·개선 방안도 마련중이다. 칠산타워 인근에 영광 특산물 전시·판매공간을 마련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도 세워놓았다. 무안군도 42명이 참여하는 TF를 꾸렸다. 칠산대교 개통으로 유입되는 여행객이 오는 2022년까지 10만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칠산대교 개통을 계기로 토요일을 운영하고 지역특산품을 주축으로 하는 수협 임시판매장과 송계어촌체험센터 운영, 음식점 확충, 인근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주차공간 마련 등 단·장기 사업을 마련해 진행키로 했다. 여수시도 화양-적금으로 이어지는 연륙·연도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도 77호선 구간 중 '여수 화양-적금(화양대교)'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바다 때문에 끊어진 국도 77호선이 연결되는데다 고흥-여수를 잇는다는 점에서 천사대교 못지않은 동부권의 해양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여객선 노선 개편·지역경제활성화·주차장 확보 등 부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부시장·시장 주재 회의를 거쳐 최종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화양-적금 구간은 여수 돌산에서 출발해 화양을 거쳐 고흥 영남까지 연결하는 11개의 다리를 건설하는 공사의 하나다. 교량 11개 중 여수 쪽 시작 교량인 돌산-화태간 화태대교와 고흥 쪽 시작구간인 여수-적금-고흥영남간 팔영대교, 중간의 화양-화정간 백야대교는 이미 완공됐다. 나머지 8개 교량 중 화양-적금 간 17km 구간의 5개 교량은 각각 화양대교·둔병대교·낭도대교·적금대교·요막교 등으로 3850억원이 투입됐다. 이들 구간이 완공되면 1시간 30분 가량 걸리던 여수-고흥 구간을 3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돼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객 급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광군 연산면 봉남리~무안군 해제면 송석리를 잇는 칠산대교가 오는 9월 추석 명절에 임시 개통되는 가운데 영광군과 무안군 등 관련 지자체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신안 천사대교는 이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4월 4일 개통 이후 10일만에 방문객이 220만명을 넘어섰고 인근 목포·북항·하당까지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해안 연안을 따라 바다와 연안, 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도 화양-적금으로 이어지는 연륙·연도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도 77호선 구간 중 '여수 화양-적금(화양대교)'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바다 때문에 끊어진 국도 77호선이 연결되는데다 고흥-여수를 잇는다는 점에서 천사대교 못지않은 동부권의 해양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여객선 노선 개편·지역경제활성화·주차장 확보 등 부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부시장·시장 주재 회의를 거쳐 최종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화양-적금 구간은 여수 돌산에서 출발해 화양을 거쳐 고흥 영남까지 연결하는 11개의 다리를 건설하는 공사의 하나다. 교량 11개 중 여수 쪽 시작 교량인 돌산-화태간 화태대교와 고흥 쪽 시작구간인 여수-적금-고흥영남간 팔영대교, 중간의 화양-화정간 백야대교는 이미 완공됐다. 나머지 8개 교량 중 화양-적금 간 17km 구간의 5개 교량은 각각 화양대교·둔병대교·낭도대교·적금대교·요막교 등으로 3850억원이 투입됐다. 이들 구간이 완공되면 1시간 30분 가량 걸리던 여수-고흥 구간을 3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돼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객 급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광주시, 근무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41개 단지 4억 지원

광주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최근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용면적 85㎡ 이하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41개 단지를 선정하고, 경비실과 휴게소 개보수, 지하 휴게실 지상 이설, 화장실 리모델링,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고, 1.5~2평 정도의 경비실 내부는 40도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 냉방기와 환기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 폭염피해에 대비해 시·구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근로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은 "지난해 42개 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추가로 41개 단지를 지원중이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경영평가 최하위

전남도 13개 산하기관 평가 강진의료원도 최하위 마 등급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전남도의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 13개 산하 출연기관 중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곳도 전무했다.

30일 전남도가 공개한 13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가·나·다·라·마 등급으로 나뉜 90점 이상 가 등급 기관은 1곳도 없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의 경우 전년도 라 등급에서 부실한 법인 신용카드 관리, 성희롱 의혹 등으로 '윤리 위반' 관련 분야에서 감점을 받아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으로 하락했다.

마 등급을 받은 곳은 전남 문화관광재단과 강진의료원이 유일하다.

문화관광재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한 재단 운영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됐다.

강진의료원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강진의료원은 올 들어 총무·원무과장의 외부 공모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남도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순천 의료원은 라 등급을 받았고 다 등급은 복지재단·중소기업진흥원·청소년 미래재단 등 3개 기관

이 받았다. 나 등급은 받은 곳은 7개 기관(여성가족재단·신용보증재단·정보문화산업진흥원·생물산업진흥원·테크노파크·환경산업진흥원·녹색에너지연구원)이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테크노파크는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전년보다 경영평가 점수가 1단계 상승했고 복지재단과 청소년미래재단은 마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2단계 올랐다.

경영평가와 함께 이뤄진 기관장(CEO) 성과계약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은 각각 '미흡', '매우 미흡' 등급 등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년도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중소기업진흥원·여성가족재단·환경산업진흥원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전남도는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영역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정책 준수 지표를 신설하는 한편, 출연기관 경영도 향상 및 비위 방지를 위해 비리·부패 발생 시 경영실적평가와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 시 감점제를 적용했다.

전남도는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은 0~150%, 기관장은 0~2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출연금도 3%~3%로 차등 지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상무소각장 활용방안 모색한다

시의회, 민·관·전문가 합동워크숍 폐산업시설 재생 우수사례 부천 견학

광주시에 상무소각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시는 30일 시의회와 민·관·전문가 합동워크숍을 열고 폐산업시설 재생 우수사례 지역인 부천 아트벤처 B39와 문화비축기지를 견학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 상무지구아파트연합회, 치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순애 광주시의회 의원, 김보현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 정책실장, 건축·문화 전문가와 광주, 서구 관계자 등 55명이 참석했다.

특히 폐산업시설 우수사례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천 아트벤처 B39(쓰레기소각장 문화재생 시설)와 마포 문화비축기지(석유비축기지 문화재생시설)를 견학하고 관계자 면담과 질의응답을 통해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갈등극복과정 등을 들었다.

또 전남대학교 운영일 교수의 '국내의 폐산업시설 우수 재생사례 및 상무소각장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번 워크숍은 오랫동안 분쟁과 갈등의 상징으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폐쇄된 후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된 상무쓰레기소각장을 관심과 참여의 장소로 전환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무소각장은 지난 1996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2000년 9월 소각장 준공, 2001년 12월 사용개시신고 수리돼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했고, 지난 2016년 12월 폐쇄됐다.

광주시는 2016년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기 전 '소각장 폐쇄후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3만1871㎡의 소각장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신축한다.

또 소각로(굴뚝)가 설치된 공장등은 건물의 특성과 장소성을 살려 리모델링,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상무복합커뮤니티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박향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장은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순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기술적 사업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가치를 재창조하는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립국악단 **토요상설공연**

2019 千年의 **樂**

나주 풍류열전

1일시 | 2019. 5. 11. ~ 10. 12.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1장소 | 금성관 동익헌

역사문화도시 여행, 즐거운 나주풍류와 함께 하세요.

[주최 / 주관] 나주시 / 나주시립예술단 | 문의 | 061)339-2542